

자유, 익숙함과 헤어지는 두려움

김연수/소설가



어릴 때만 해도 자유란 집을 떠나는 걸 의미했다. 그건 부모님, 형제자매, 추억이 묻어나는 집 구석구석, 저마다

기나긴 역사를 지닌 집안의 물건들 등과 헤어지는 일을 뜻했다.

그제야 우리는 자유 속에는 익숙한 모든 것과 헤어지는 아픔이 반드시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한편으로 자유란 처음 겪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자유가 오히려 두려울 지경에 이르니 그 기억이 생생하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미애와 루이, 318일간의 버스여행》(자인)은 두 부부가 버스를 타고 서로의 고향인 서울에서 파리까지 왕복 여행한 기록을 담은 책이다. 이 여행에는 프랑스 사진작가 장 루이 볼프, 모델이자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한국인 최미애, 그들의 아들인 이구름, 딸인 릴라 등이 참여했다.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파리까지. 이 여행은 자유로운 정신은 어떤 일들을 겪는지 보여준다.

인듯 보기에 책은 온갖 고난으로 점철된 듯 보인다. 작업실 임대 때 따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중고 버스를 이동 스튜디오로 개조하는 과정에서부터 고난은 시작된다. 전례가 없는 상황이니까 모든 걸 자신들이 챙겨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정도는 그 버스를 타고 중앙아시아를 가로질러 파리까지 가겠다고 나선 뒤, 생긴 어려움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이 책은 자유로운 여행이라는 얼마나 처절한 현실 속에서 가능한 것인지 다음과 같은 구절을 통해 보여준다. “인천 세관, 서울 세관, 부산 세관에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문의해 보았지만, 버스를 가지고 여행한 사례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다.(…) 한국에선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시간 낭비를 많이 해야 한다.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과 전화로 필요한 정보를 알기란 절대 불가능한 일이며, 자기 일이 아니면 관계없는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넘겨주기 십상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방법을 찾으려 하기도 전에 무조건 ‘노노노’다.”

중국 다롄까지 ‘수출’ 하는 방식으로 버스를 반출시킨 이

들은 중국,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터키, 이탈리아 등을 거쳐 남편의 고향인 프랑스로 들어가게 된다. 이 여행에서 그들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서로의 모습에 실망하게 되고 급기야 여행은 중단될 위기에 놓인다. 가까스로 여행을 재개하긴 했지만, 외국인이라면 돈부터 요구하는 중앙아시아 국가의 경찰들에게 호되게 당한 뒤에야 자유라는 게 실은 성밖으로 나간 자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뜻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사막 가운데서 밤에 운전하는 것은 거의 목숨을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다. 어두운 밤의 도로를 밝혀줄 가로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뿌연 먼지가 앞을 가려 시계가 5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돌아보면 자유란 얼마나 무모한 생각이었는지. 아마도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50m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길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길을 계속 따라가면 파리가 나온다는 사실도 모를 게 분명하다.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그 감정을 왜 사람들이 자유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는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다.



• 필자 소개 •

필자 김연수씨는 성균관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소설가이자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소설집으로 〈가면을 가리며〉, 〈스무살〉 등이 있으며, 2001년 동서문학상을 수상했다.